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2. 2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트럼프, 멕시코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
 - 12.22 외신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 「도널드 트럼프」가 보수단체 컨퍼런스에서 펜타닐과 같은 마약 금지 광고 캠페인과 함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관련 반복하여 언급하였다고 보도
- 美, 예멘 후티叛軍 테러단체 재지정 추진
 - 12.23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「마크 왈츠」 하원 의원이 예멘 후티叛軍을 외국인테러조직(FTO)으로 재지정할 것이라며 동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티를 테러조직에서 해제한 건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보도
 - ※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내전을 겪는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(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)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반영해 후티를 SDGT와 FTO 명단에서 제외했다 부언

유 럽

- 英, ISIS 추종자 등에 의한 테러 대비를 위해 경계 강화
 - 12.19 외신은 영국 경찰이 시리아 감옥에서 풀려난 ISIS 추종자들이 自國으로 돌아올 경우, 극단주의 사상에 심취한 개인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,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이와 별도로, 英 대테러 관계자가 극단적인 콘텐츠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테러 위협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, 영국 안보동향 주시
- 세계 각국, 독일 크리스마스마켓 차량 돌진 이후 보안 강화
 - 12.22 언론은 지난 20일 독일 크리스마스마켓에 차량 돌진으로 2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자, 세계 각국에서 일제히 긴장을 높이며 △마켓 보안인력 추가(뉴욕) △테러주의 4단계 유지(네덜란드) △테러위험 경고(유럽) 등 보안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
 - ※ 극단주의자들이 크리스마스라는 상징적인 시기를 이용하여 공포를 극대화 관련 장소를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만큼, 테러 등 발생 가능성에 유의

중 동

○ 美 중부사령부, 시리아 ISIS 지도자 등 2명 사살

- 12.21 美 중부사령부가 시리아 데이르에조르州에서 활동하고 있는 ISIS 대상 공습을 시도해 지도자 「아부 유시프」 등 2명을 사살하였으며, 同 조직이 시리아에서 재건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

※ 또한, 美 중부사령관은 “ISIS가 현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8천여명의 대원을 빼내려는 시도를 한다”며 테러단체의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

○ 이스라엘, 예멘 후티叛軍에 “무력으로 대응하겠다” 위협

- 12.23 언론은 이스라엘 총리 「베냐민 네타냐후」가 예멘 후티叛軍에 대해 “이스라엘은 무력으로 대응하겠다”라고 위협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며 이는 후티叛軍이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지 하루만의 성명 발표라 보도

※ 同人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“후티군이 국제 해운의 위협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질서에 위협한 존재”라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○ 中, 극초음속 드론 세계 최초로 지상 착륙 성공

- 12.19 언론은 중국 극초음속 드론(MD-19)이 세계 최초로 비행 후 활주로 착륙에 성공하였으며, 이후 再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활용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도

※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는 최신 드론 현황에 관심, 대테러 업무시 참고

○ 인도·러시아, 테러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

- 12.21 언론은 인도와 러시아가 합동 회의에서 테러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, 극단주의와 테러자금 조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

※ 러시아·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내년초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세계 안보·대테러 협력 강화 및 변화동향 참고 필요

아프간 카불, ISIS-K에 의한 자폭테러 발생

- '17.12.28 아프간 카불內 시아파 계열 종교문화 시설인 타비안 사회문화 센터*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나 41명이 목숨을 잃고 84명의 부상자가 발생
 - * 이슬람 시아파 계열의 종교 문화시설로 사건당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39주년 관련 강연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, 여성 등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
 - 폭탄테러는 최초 문화센터 외부에서 두차례의 폭발이 일어났고, 이후 군중들이 밀집되어 있던 행사장 건물지하에서 대규모 폭발 발생
 - 사건직후 ISIS-K는 자신들의 선전매체인 아마크통신 통해 “폭탄 조끼를 입은 대원이 자폭을 했으며 3개의 폭탄을 터쳤다”고 주장하며 배후를 자처
 - 이에, 아프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‘인류애에 반하는 범죄이면서 사원뿐만 아니라 문화센터까지 공격했다’며 ISIS-K에 대해 강력히 비난
 - * 반면, ISIS-K는 이후에도 유권자 등록센터 웨딩홀 등 동지역의 테러를 지속 자행
- ⇒ 당시 우리국민 피해는 없었으나, 연말연시 카불지역內의 테러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바, 피해가 없도록 관심이 요망됨

< ISIS-호라산 지부(ISIS-K) >

- (목표)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 - *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를 지칭하는 옛 지명
- (테러단체 지정) UN('19.5), 미국('16.1), 호주('17.11), 인도('18.6)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 및 정부청사·다중운집 장소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- (생성배경) '아프간 탈레반'·'파키스탄 탈레반' 조직에서 소외된 중견 간부들(특히, 파키스탄 부족 자치지역 출신)이 이탈, ISIS에 충성맹세 후 결성
- (카불內 주요 테러 현황)
 - ⇒ 16.7월 '데 마장 광장'에서 시아파 겨냥 테러로 인해 80명 사망
 - ⇒ 17.1월 카불 內 軍 병원 대상 테러로 49명 사망
 - ⇒ 17.5월 카불 외교단지 內 독일 대사관 인근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150여명 사망
 - ⇒ '21.8월 카불 공항·인근 호텔 자폭테러로 182명 사망